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이 나는 건강수명,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다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10월 22일 '제14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 개최 -
- 건강검진 데이터부터 암생애초기 연구까지... 건강격차 진단하고 형평성 제고 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현주)은 10월 22일(목) 오전 10시 30분 경북 경주 소재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105호에서 '모두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다'를 주제로 「제14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대한예방의학회 가을학술대회와 연계한 기획 세션으로, 예방의학·공중보건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건강격차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건강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의한다.

올해 미래 건강전략 포럼은 '모두의 건강'을 공통 주제로 연속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9월 근거 기반 건강정책에 이어 이번에는 소득·지역 등에 따른 건강격차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건강수명의 지역별 격차는 2023년 2.03년으로 2016년 2.86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소득수준별 격차는 8.13년으로 10년 전(7.14년) 대비 약 1년 증가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질병 예방부터 진단, 치료, 관리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건강격차가 어떻게 축적되며 이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격차 해소를 위해 언제,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 지역별 격차(상위 20%-하위 20%, 년): ('13) 2.28 → ('16) 2.86 → ('18) 2.74 → ('23) 2.03
소득수준별 격차(상위 20%-하위 20%, 년): ('13) 7.14 → ('16) 7.59 → ('18) 8.04 → ('23) 8.13
(출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3년 건강수명 통계집)

주제 발표에서는 먼저 정취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2026~2030)의 건강형평성 지표 관리체계 개선 사항을 짚어보고, 미국·영국 등 사례를 참고해 건강 결과뿐 아니라

소득·노동·교육·주거 등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개선까지 정책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어 박종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소득 상위 20%(건강보험 5분위) 간 검진 수검률 격차가 지난 10년간 최대 19.4%p까지 확대된 반면 만성질환 사후관리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분석을 토대로 저소득층 검진 확대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한규태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부분부장은 암 생존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암 예방 정보를 찾아보는 비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10.5%p까지 차이가 나고, 수술 대기시간, 호스피스 총족률 등 치료 과정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함을 근거로 암 관리 전반에서 형평성을 높일 필요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강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현재 90개 보건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이 양육 관련 안전지식, 산모 정신건강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양육환경 지표의 불평등을 약 18~20% 줄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해, 사업의 전국 확대 필요성과 생애초기 격차 해소를 위한 소득·고용·돌봄 등 종합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다.

*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임산부 또는 만 2세 미만 영유아 양육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정백근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 정책 과제를 논의한다. 현장 및 온라인 참석자들과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한편, 포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치료 기술과 성과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지만,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은 여전히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며, “모두의 건강을 실현하기 위해 격차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여건이 어려울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격차를 줄이는 사업을 꾸준히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하여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현주 원장은 “건강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격차가 발생하는 지점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출발점이다”라며, “지역마다 다른 여건에 맞춰 사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4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 포스터

담당 부서 <총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은정 (044-202-2810)
		담당자	서기관	김한얼 (044-202-2802)
담당 부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정책부	책임자	부 장	양윤희 (02-3780-2208)
		담당자	부 원	강지완 (02-3780-2202)



붙임

제14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 포스터

제14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

02 EQUITY

모두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다

일시 2026.10.22. (목) 10:30-12:30

장소 경주화백컨벤션센터 1F, 105호

오프닝

개회사

김현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환영사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세션1

주제발표

1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과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모두가 건강해지는 시작

정희경희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교수

2

건강보험 데이터로 본 건강격차와 정책과제

박종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

3

암 전주기에서 바라본 형평성: 국립암센터 연구로 살펴본 암 격차

한규태 |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부분부장

4

생애초기 가정방문 중재의 지역사회 무작위대조시험 결과와 건강 형평성 정책과제

강영호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세션2

종합토론

좌장

정백근 | 경성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패널

김건업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새롬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최민혁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교실 교수

이진한 |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온라인 및 현장 청중 질의응답

‘모두의 건강’ 포럼 일정

9월 | 근거 기반

10월 | 건강형평성

11월 | 생애주기/생활터 접근성

12월 | 미래 건강위험

온라인 생중계

제14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 채널 실시간 중계

- 4 -